

[오피니언]

테마칼럼

여성시계

성지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강기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

나날이 추락해 가는 전남대의 위상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온정주의는 해법이 아니다.

”

국립대의 존재 의미

한국 땅에서 소득 활동을 하며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자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국립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국

립대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국립대는 그런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신입생 선발 기준이 사립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립대 졸업생들이 졸업 후 국가를 위해 특별히 더 봉사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국립대라는 이를 하나 때문에 국가의 보조로 등록금이 적을 뿐이다.

혹자는 교육의 공공성을 내세우면서 국립대가 있어야 하고 그 등록금이 적어야 한다는 주장은 평기도 한다. 물론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의 외부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읽고(Reading), 쓰고(writing), 계산하는(aRithmetic) 교육, 이른바 초등학교 수준의 3R 교육에는 존재 한다. 3R을 모르면 본인은 물론 타인도 함께 생활하기에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생활상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에는 외부효과가 없다. 따라서 공공성도 없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립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국립대 등록금이 사립대 등록금보다 적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는 물론 오늘날 국립대가 존재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없다는 데 있다. 학생들이 등록금은 적게 내고

양질의 교육을 원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내는 세금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일 뿐이다.

정당성 없는 등록금 투쟁

결국 등록금 동결 투쟁의 일환으로 대학 건물을 점거하는 행위,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총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그리고 동맹투쟁 운동하는 행위는 어디에서도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설득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학교 건물을 불법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학교는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경찰 또한 학교 내의 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치안 유지 차원에서 협조하는 것이 임무다. 승이 제자를 고발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겠지만, 학교의 기강 확립을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라면 지불해야 한다. 나날이 추락해 가는 전남대의 위상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온정주의는 해법이 아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독도해역 한국식 海底명칭 양보해선 안된다

독도 주변수역 측량을 둘러싼 대치국면을 풀기 위한 한일 양국의 공식·비공식 접촉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은 우리 측에 오는 6월 독일에서 열리는 IHO(국제수로기구) 산하 해저지명소위원회에서의 한국 지명상정 계획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이 수로탐사계획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은 시대착오적인 영토 확장 애육을 드러낸 것이다.

외교적 노력으로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국의 시도는 일단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일본의 터무니 없는 협상 요구는 독도를 학제적인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차제에 독도 인근 수역에 대한 한국식 지명 상정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1978년부터 독도 일대 해역의 국제 표기는 일본식 지명 일색이다. 적어도 IHO에서는 독도 주변수역에 대한 일본 영유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일본이 한국

'민생총리' 표방 한총리, 국정 방향 잘 잡았다.

국회 인준청문회를 통과한 한명숙 국무총리가 어제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대한민국의 첫 여성총리가 탄생한 것이다. 그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민생 현장을 찾아 지친 이들의 손을 감싸드리는 민생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지시하고 명령하기보다는 경청하는데 힘쓰고, 때로는 국민이 처한 현실의 상황 속에 자신을 던져 국민의 어려움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대를 한몸에 모으고 있는 총리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잘 해야 한다는 정확한 국정 방향 설정이다.

새 총리가 더욱 미더운 것은 그의 균형감각이다. 우리 사회처럼 갈등구조가 점에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가 국회인준을 받는 과정은 선거판 여야 대치정국 속에서도 매우 원만했다. 한나라당은 당초에 인준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나중에 의원 자유투표로 입장을 바꿨다. 그 결과 264명의 국회의원이 참가한 본회의 투표에서 찬성표가 182표나 나왔다. 여당 의원 13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볼 때, 나머지 4당과 무소속 표가 47표나 되므로 한나라당 의원들도 상당수 찬성했다는 얘기다.

우리는 한명숙 총리의 이같은 원만한 출발이 온전히 그의 인생관과 철학, 유연하면서도 할 일을 하는 캐릭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한 총리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줬다. “운동권 시절 투옥된 것에 한(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글씨가 많은 우리 현대사 속에서 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을 겪었다”며 “저는 한이 빚히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제 세상을 만난듯 살피는 운동권 출신 인사들과는 사뭇 다른 정서다.

우리는 그가 방향타 없고 헤매는 국정 아래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해졌는지 잘 해야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가 말한 대로 피로에 지친 국민들을 감싸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기대해본다.

無等鼓

2005년 6월 17일, 일본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1천 730km 떨어진 오키노토리(沖ノ鳥)에 표지판을 세웠다. 가로 1.5m·세로 1m의 철제 표지판에는 ‘도쿄(東京)도 오가사하리무라(小笠原村) 오키노토리 섬 1번지’ 일본의 최남단 섬. 국토교통성 관리’라는 글귀를 새겼다.

오키노토리의 크기는 동서 4.5km·남북 1.7km, 만조 때만 4평 남짓한 바위 두 개가 둘 위 70cm 정도 모습을 드러내는 산호초로 이루어진 암초다.

오기노토리를 살리려는 일본의 노력은 필사적이다. 과도에 깎여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6천억 원의 돈을 들여 콘크리트와 금속 구조물로 둘러쌌다. 오는 5월부터는 강장동물(腔腸動物, Coelenterata)인 산호 암초 30여만 개를 채취, 수조(水槽)에서 키운 뒤 여름에 옮겨 심기로 했다.

일본은 이곳을 기준점으로 최근 반경 200해리에 베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본토(38만km²)보다 넓은 40만km²의 EEZ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ons@kwangju.co.kr

라면 먹는 법

우리는 바야흐로 인스턴트식품의 흥수 속에 살고 있다. 아침은 빵과 시리얼에 우유를 마시고 지하철입구 토스트가게를 단골로 삼은 지 오래다. 연중 한 두 달 빼고 할인해 주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고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꼭 우동이나 칼국수 집에서 한 끼를 때운다. 식탁 위의 반찬만 해도 햄, 소시지, 통조림 등 가공식품이 빠지지 않고, 라면은 늦은 오후의 간식으로 한밤의 술안주로 이용된 지 오래다.

여러로부터 밥과 국을 같이 먹어온 우리에게 라면은 쌀 다음으로 익숙한

그러던 차에 지난 11일 세계라면협회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회장은 일본의 안도 모모후루라는 97세의 노인. 나이가 믿기지 않는童顔에 연간 100번이 넘는 라운딩을 즐기며, 편식하지 말고 소식과 운동, 편한 마음가짐을 건강비결로 꼽았다고 한다. 47세에 다니던 직장이 파산하여 실의에 빠졌을 법도 하건만 자기 집에 3평 남짓한 실험실을 차려 놓고 라면개발에 성공하여 지금은 매출액 2조 5천억원이 넘는 회사를 거느리고 있다니 대단한 노의장이다.

그러나 즐겨워야 할 일요일을 싸움으로

세종 10년에 호조에서 올린 상소문에는 전라, 경상, 충청도 땅은 상등(上等)이요 경기, 강원 황해도 땅은 그만 못하므로 중등(中等)이며, 평안, 함경도 땅은 평마르므로 하등(下等)이라고 했다. 우리 전남지역의 땅이 기름지고 품질 좋은 쌀이 생산되는 곡창지역임에는 분명하다.

이런 좋은 여건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노력한 결과, 지난 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평가한 ‘전국 쌀 최우수 브랜드 12’에 전남 브랜드 쌀이 4개나 선정되어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다.

전남도의 경우 좋은 품종을 선택하여

기고

정해율



발벼 이제 그만

그러나 농협중앙회 양곡유통센터에서 거래되는 산지별 쌀 가격을 보면 경기도 쌀에 비해 전남 쌀은 27% 낮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전남에서 생산된 쌀 92만톤을 기준으로 할 때 경기도 쌀과의 가격 차이는 5천 865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호남 쌀은 밥맛이 없다는 소비자들의 막연한 인식이 생겨난데다 밭벼 생산량도 많아 훈합 유통되면서 품질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해 전라남도 밭벼 재배면적은 9천 2백여㏊로 전국의 7.2%를 점유하여 가장 많은 면적이 재배되고 있다. 밭벼는 논벼에 비해 물이 없는 상태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품질이나 밥맛이 극히 떨어진다.

그리고 벼를 밭에 재배하면 구산질 비료 흡수율이 낮아 도열병과 같은 병

질소비료 줄여주기 등 밥맛을 좋게 하는 재배기술 및 수확 후 건조·저장·유통 등 종합적인 기술을 투입해서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또 전남도에서는 ‘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을 세워 올해 2년째로 전체 농산물의 10%를 친환경농산물로 생산할 계획이다.

전남의 모든 농산물은 안전하면서 품질이 좋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들도록 철저한 이력 관리를 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곡물검정협회가 주축이 되어 품질 등급발표, 인증부여 등으로 품질에 따른 가격이 정착되어 외국 쌀과 차별화를 시켜 나가고 있다.

외국쌀 국내 시판이라는 메가톤급 태풍 앞에서 전남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톨의 밭벼도 생산되지 않도록 농업인 모두가 앞장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일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은펜클럽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 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

연령 표기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현재 아이들 나이를 말할 때나 문서 등에 표시할 경우 일반 나이(배내 나이)와 만 나이(생후 나이)를 병행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나이 10세라면 만 나이는 대략 한살 적은 9세가 되는 셈인데, 이로 인해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이를테면 취학 연령은 만 6~7세로 되어

있고 정장 연령은 만 18세, 성인연령은 만 19세, 7급 공무원시험과 선거 연령은 현재 만 20세, 최종 병역만기 연령(민방위)은 만 45세 등이다.

▲이슬·목포시 영애동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놀이공원이나 국립공원 등에서 각종 입장권을 구입할 때 어린이나 학생·청소년들의 할인권을 놓고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 연령을 표시할 때 생후 몇 년 몇 개월 등으로 구체화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당 연령을 고지하거나 표기 할 때 생년월일이나 생후 몇 개월 등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이를 통해 혼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벼를 밭에 재배하면 구산질 비료 흡수율이 낮아 도열병과 같은 병

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영애동

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영애동